

■ 第1回 冊의 文化 세미나 主題發表

圖書媒介裝置로서의 公共圖書館

崔 成 眞
成大教授·圖書館學

1. 머리말

한 세기 전에作成된 世界最古의 公共圖書館關係文獻이 公共圖書館의 社會的 機能을 說明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價値가 있다. “사람은 教育을 통하여 누구나 完全해질 수 있으며, 教育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책이다. 그렇지만 값이 비싸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싶은대로 책을 사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世界最初의 公共圖書館이 된 미국 「보스톤」圖書館의 創設을 건의한 「조지·티크너」 등의 對政府建議文 가운데 一部이다. 「티크너」는 이 建議文 속에서 稅金으로 設立 運營되며 모든 市民에게 無料로 책을 貸出하는 種류의 도서관이 존재하던 비싼 책 값이나 圖書接近을 가로 막는 그 밖의 여러가지 障礙要素들이 除去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티크너」의 發想은 當時 「유럽」으로부터 물 밀듯 흘러 들어 온 無識하고 亂暴한 移民集團과 선거를 통하여 成立되는 國家權力 構造에 대한 이들의 理解不足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미국 共和體制의 危機가 그 背景을 이루었다. 當時의 이러한 社會的 狀況 속에서 그는 一般市民들에게 책을 읽혀 그들로 하여금 교양 있고 參政資格을 갖춘 시민으로 教育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自由 讀書를 통한 住民教育과 그것을 위한 圖書의 수집 및 제공이 그가 웨친 說教內容의 중심이었다. 讀書를 통한 住民教育과 圖書의 提供이라는 두가지는 모든 公共圖書館의 共通的 基本目標요 機能이다. 그것은 時代와 社會의 背景을 달리하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約 70年前에 처음으로 愛國의 계몽적 동기에서 출현한 우리나라 近代公共圖書館은 數年 후에 닥쳐온 韓日 合邦으로 36年間을 日帝의 植民統治 道具로 盜用 당하다가 1945年 8. 15해방 후에야 다시 民族文化機關으로 復元되었다. 그러나 開館 수삼일만에 1만여권 장서 중 근 4천권이 貸出되어 나간 初期의 그 活氣와 盛況은

끝내 復元되지 않았다. 今世紀初 漸增하는 外國勢力의 침략 위협에 對備하고 獨立을 보전하기 위하여 無知 속에 태평하기만한 國民을 깨우려고 公共圖書館을 세우고 책을 모으던 독자가들에게는 절박한 目標과 熱誠이 있었고, 國民은 그러한 목표와 성의에 共感하여 公共圖書館이 生動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8. 15해방에서 6. 25까지의 社會的 混亂, 戰爭 3年間의 파괴, 戰後의 苦難에 찬 생활 등 一連의 不運한 소용들이 속에서 公共圖書館은 이렇다할 中興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63년 圖書館界 待望의 圖書館法이 제정 공포되고 이후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의 활동과 봉사는 政府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現行圖書館法 속에 公共圖書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公衆의 教養과 조사, 연구, 「테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하는 施設을 말한다”고 定義되었다. 이제 적어도 法上으로는 全國 地域社會마다 公共圖書館이 세워지고, 그것이 수집 제공하는 도서를 읽음으로써 모든 住民들이 교양을 쌓고, 조사, 연구, 「테크리에이션」 活動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미 빛 꿈은 그후 時間이 지남에 따라 점점 퇴색되었다.

2. 問題領域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當面한 問題의 一面을 보여주는 文獻으로 第12回 全國圖書館大會(1973. 10. 4-6; 全南 光州市)에서 채택된 對政府建議文이 있다. 이 建議文 속에서 大會參席者들은 “停滯狀態에 있는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을 積極 시행하여 줄것”을 정부에 호소하였다. 이것은 第10回大會 이래 세번째 되풀이된 꼭 같은 내용의 호소였다.

1975年에서 1979年까지 5年 사이에 우리나라 公共圖書館 數는 108個館에서 118個館으로 10個館이 늘어났다. 즉 해마다 平均 두개의 새로운 공공도서관이 세워졌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總藏書는 1975年에서 1979年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이터」들은 지난 5年間이 劇的으로 經濟成長이 이루어지고 社會 各 分野의 活動이 急激히 增大된 期間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활동이 얼마나 沈滯되어 있는지를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先進開發途上國家群에 들어 있는 나라들의 公共圖書館 사정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한 아래 표를 보면 더욱 分明히 알 수 있다.

까지 5年 사이에 924,595책에서 1,140,090책으로 215,495책이 증가하였다. 즉 해마다 平均 43,099책이 100여개 圖書館藏書에 더해졌다. 年間 圖書購入費는 1975年에서 1979년까지 5年 사이에 98,892,000원에서 270,081,000원으로 近三倍나 增額되었지만 이것도 같은 기간의 통화 팽창과 또 미국 「인디애나」大學圖書館의 1977年度 한해 豫算이 약 40억원이었다는 한가지 사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아직 그 絕對額이 태부족이라는 것

先進開發途上國家들의 公共圖書館

國	名	調査年度	人 口	館 數	藏 書(合計)	1館當奉仕人口	人口100名當 冊數
한	국	79	34,708,542	118	1,140,090	294,140	3
브	라	71	92,341,000	3,035	9,275,000	30,425	10
콜	롬	78	22,500,000	200		112,500	
홍	콩	74	4,366,000	9	230,000	485,111	5
이	란	74	25,789,000	200		128,945	
이	락	71	11,505,000	110	583,000	104,591	5
케	냐	77	10,942,000	9	300,000	1,215,778	3
쿠	웨	74	994,000	22	178,000	45,182	20
말	레	74	10,319,000	8	468,000	1,289,875	5
말	타	78	315,000	47		6,702	
멕시코	시	73	58,118,000	942	2,752,000	61,696	5
대	만	78	16,150,000	68	632,000	237,500	4
터	키	78	35,660,000	365		97,699	
베	네	71	12,361,000	5	65,000	2,472,200	0.5

國家發展의 수준이나 그 속도로 보아 우리의 가장 비슷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멕시코」 臺灣의 세 나라 公共圖書館 사정과 우리의 사정을 비교하면서 살펴 본다. 1館當 平均奉仕人口라는 觀點에서 우리나라 公共圖書館 奉仕를 「브라질」의 現水準으로 올리려고 하면 우리는 당장 1,023個의 새로운 도서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마다 현재의 館數(118個館)만큼 계속 倍加하여 가더라도 앞으로 9년이 걸릴 것임을 뜻한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는 고작 2個館에 지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면 445개의 새로운 도서관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4년간 해마다 현재의 館數만큼 신설해 가야 함을 뜻한다. 臺灣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더라도 28개의 도서관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現在の 增加率(年平均 2個館씩)이 지속되는 경우 앞으로 14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 된다. 人口 100名當 冊數라는 觀點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봉사 「브라질」의 水準으로 올리려고 하면 2,330,764책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2년간 해마다 현재의 장서량(1,140,090책)만큼이 倍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年平均 增加는 43,099책에

지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595,337책이 더 있어야 하며 이것은 현 장서의 半만큼이 더 수집되어야 함을 뜻한다. 臺灣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면 248,252책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現在の 增加率(年平均 43,099책)이 지속되는 경우 앞으로 6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奉仕는 資料의 整理法이나 奉仕方式 같은 內部的 技術의 側面을 論議하기 전에 藏書量이나 圖書館施設 같은 基本的 條件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우리 역사 속에 6.25와 같은 불행한 시기가 있었고, 또 도서관이라는 社會機關이 그 성질상 短期間에 急成長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었던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발전 수준의 國家들 중에서 最下位圈에 속해 있다는 현실은 무슨 구실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같은 初步的 公共圖書館奉仕마저 都市에 集中되어 있어 農漁村에는 그 惠澤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都市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없어도 家族中에 學生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學校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 藏

책을 빌려다 볼 수 있고 또 職場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職場에 附設된 特殊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 藏書를 대출하여다가 읽을 수 있는 便法이라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博物館이나 美術館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農漁村 住民들에게는 그러한 便法도 없다. 그들에게는 名畫에 接할 수 있는 기회도 책을 통해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公共圖書館의 必要性은 都市에서 보다는 오히려 地方에서 더 切實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地方에 우리나라 人口의 半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解決方向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새 도서관을 많이 세우고 새 책을 많이 사 모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圖書館人들의 힘만으로 간단히 成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크게 정부의 이해와 태도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方向의 論議는 잠깐 뒤로 미루고 우선 공공도서관이 一般國民의 圖書接近 裝置로서 기능하는데 있어 도서관 내부에서 司書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두가지 基本問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봉사에서 오랫동안 是正되지 못하고 있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入館料 徵收 문제와 家庭貸出 制限 문제가 그것이다. 公共圖書館의 無料利用은 世界最古의 公共圖書圖 創設 때부터 내려오는 一般的 方針이다. 공공도서관이라는 館種 自體가 既存 有料貸出 圖書館을 이용할 수 없는 市民들에게 책을 제공하려는 意志와 思想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 無料利用原則은 공공도서관 존재의 名分이요 간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名目으로는 공공도서관에 들어 가는데 돈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市民이 公園에 들어 가는데 入場料를 징수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부당한 일이다. 공공도서관 봉사를 無料로 住民에게 提供하는 것이 大學生과 敎授에게 대학도서관 봉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發表者는 한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入館料 徵收 正當論을 들은 일이 있다. 즉 名目上의 入館料라도 정수함으로 거지나 부랑자의 出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소한 副作用이 두려워 原則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케번이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나 왜 公共圖書館이 거지나 부랑자의 出入을 꼭 막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떤 사람은 現行 入館料가 소액의 名目上料금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더욱 그런 實利도 없는 入館料 때문에 公共圖書館의 像을 그르치고 資料接近에 작으나마 障礙要素를 造

成하는 愚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요금이 적어서 사실상 利用者들에게 金錢으로 負擔感을 거의 주지 않을지는 모르나,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入館料라는 이름의 存在가 마음대로 接近할 수 없다는 격리감을 풍겨 일반 잠재 이용자들에게 意外로 큰 心理的 影響을 줄는지 알 수 없다. 모든 地域社會 住民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친근감을 느끼면서 마음 내키는대로 언제든지 발걸음을 돌려 공공도서관에 들어 설 수 있을 때 圖書接近裝置로서의 공공도서관은 國民 가까이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公共圖書館界의 오랜 宿題 가운데 다른 하나는 資料의 家庭貸出 문제이다. 大學圖書館, 專門圖書館 등 다른 館種의 자료와는 달리 공공도서관 자료는 그 내용이나 이용 동기로 보아 일부러 도서관을 찾아가 장시간 눌러 앉아서 읽을만큼 그렇게 時急하고 切實한 것은 아니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小說이나 傳記를 읽으러 도서관에 찾아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자료의 貸出期間, 貸出冊數 등 공공도서관의 貸出規定은 다른 어떤 館種의 그것보다도 寬大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家庭貸出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적은 장서가 곧 바닥이 날 것이고 분실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이다. 적은 藏書나마 쌓아 놓고 읽혀지지 않는 것보다 대출되어 다음 번을 豫約하는 사람들이 줄 지어 없어 서게 되는 편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家庭貸出을 통하여 公共圖書館은 閱覽室을 마련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많은 經費를 절약하고 그것을 不足한 도서관구입비 증액에 効果的으로 轉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어느 편을 더 바랄 것인지는 自明한 일이라고 믿는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과 책을 연결시켜 주는 媒介裝置이다. 그것이 매개 기능을 效率的으로 수행하려면 人爲的 장애요소, 예컨대 入館料나 家庭貸出 制限 같은 것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不幸히 그러한 장애요소가 생겨서 존재한다면 조속히 除去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現行 奉仕의 效率을 위해서도 절실하지만, 충분한 도서관 시설이나 장서를 갖추게 될 미래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것이다.

(나) 長期對策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앞에서 言及한대로 필요한 만큼의 도서관이 세워지고 충분한 藏書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表現은 애매하기 때문에 계획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줄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우리나라와 발전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公共圖書館 數와 藏書量을 第1次目標로 삼

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1차 목표도 우리가 쉽게 短時日內에 成就할 수 있는 課題는 아니다. 가령 앞에서도 例示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發展水準이 아주 비슷한 「브라질」의 現行 公共圖書館 奉仕水準에 到達하려고 하더라도 앞으로 9년간 해마다 現存公共圖書館의 數만큼, 즉 118個館씩 새 도서관을 세워 가야 하며, 앞으로 2년간 해마다 現在의 藏書量 만큼 즉 1, 140, 000권씩 책을 늘려 가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 추세를 보면 年平均 도서관은 2個館씩, 藏書는 4만여책씩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발전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假定하면 1館當 平均奉仕人口라는 觀點과 人口 100人當 公共圖書館所藏 책수라는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 봉사를 「브라질」의 수준으로 올리려면 각각 5백여년과 50여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計數上의 結論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駭異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공공도서관 봉사를 短時日內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妙案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폐하여 버리고 잊을 수도 없다. 實現可能한 段階的 發展計劃을 세우고 몇십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長期對策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短期對策

長期發展計劃이 실행되고 계획 목표가 모두 成就되어 効率的 公共도서관 봉사 조건들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이용자들은 불편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때까지의 時間的 간격을 메울 어떤 잠정적 短期對策이 마련되어 주어진 與件下에서나마 中斷 없는 공공도서관 봉사가 모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短期對策은 永久的 圖書館施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이 마련되기 전에 또는 마련되기 어려운 곳에서 各種 移動文庫나 우편문고 따위를 活用하여 이루어지는 奉仕計劃이다. 그런 종류로서 代表的 奉仕形態는 自動車文庫, 船舶文庫, 汽車文庫, 철매文庫, 郵便文庫 등이다. 물론 제대로의 도서관과 같은 충분한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文庫들은 적은 장소와 적은 경비로써 短時日內에 시작할 수 있으며, 또 적은 人力으로써 運用될 수 있다. 都市에서 멀리 떨어져 公共圖書館을 이용할 수 없는 山間 마을이나 섬 마을 사람들에게 책의 세계를 接近시키는 일은 그런 文庫들만이 할 수 있다.

筆者는 기이한 因緣으로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은 「카나다」 東部の 한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때 겨울이 되면 海岸을 따라 몇몇씩 물려 있는 漁村 住民들에게 한 무리의 개가 끄는 철매文庫가 능률적으로 책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여름에는 철매 代身 定期

的으로 찾아 가는 배편으로 유사한 봉사가 提供되었다. 車가 다닐 수 없는 「그리스」의 內陸 山間 마을에는 책상자를 실은 노새가 간다. 집들이 멀리 떨어져 마을이 形成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혼자 사는 老人들, 신체불구자들에게는 郵便文庫가 가장 편리한 圖書의 媒介手段이 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전국의 모든 地域社會에 대하여 効率的인 圖書媒介機能을 수행하려면 조속히 필요한 만큼의 도서관이 세워지고, 충분한 장서가 수집되고, 合理的 奉仕體制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相當한 時日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위에 例擧한 것들과 같은 各種 移動文庫를 통하여 最小限으로나마 공공도서관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그 중에서 특히 自動車文庫와 船舶文庫를 들어 그 可能性과 問題點을 考察해 보려고 한다.

4. 自動車文庫

도서관 봉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地域 住民들에게 가장 손쉽게 初步的 奉仕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自動車文庫이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經費가 큰 폭으로 오르는 時代에는 자동차문고가 도서관봉사를 擴大하는 唯一한 길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가) 問題點

도서관봉사에 있어서 自動車文庫의 効用性을 회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한 회의의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自動車文庫는 그 이름이 말하여 주듯이 여러 場所를 돌아 移動하기 때문에 固定된 圖書館施設에 비하여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책을 빌리려면 自動車文庫가 오는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둘째 制限된 空間 때문에 自動車文庫의 藏書는 3천권 내지 5천권 정도로서 주로 일반도서관이고 따라서 참고자료는 불충분하기 마련이며 또 책상, 의자 같은 열람시설이 없으므로 그 봉사는 不完全한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自動車文庫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自動車文庫의 存在 自體를 否定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人間活動은 그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時間的要素에 의하여 制限을 받기 마련이다. 고정된 시간표에 의하여 차가 運行한다고 하여 우리가 철도국이나 버스會社를 나무랄 수 있겠는가? 銀行이 저녁 아홉시까지 열지 않는다 하여 또는 醫師가 우리에게 편리한 시간에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불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自動車文庫가 우리에게 편리한 시간에 찾아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다. 우리는 부득이 自動車文庫의 時間表에 맞추어

그날의 日課를 짜야 하며 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自動車文庫의 제한된 공간이 충분한 대출자료와 참고자료, 열람시설을 허용치 아니함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열람시설을 論外로 한다면 규모가 작은 어느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도 그러한 不滿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一般的으로 小規模圖書館의 장서는 그 大部分이 오래되어 要求가 들어 든 자료들이다. 그러므로 큰 도서관 장서에서 빼어 자주 갈아 신는 自動車文庫의 장서는 有用性에 있어 소규모 도서관 장서보다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다. 參考資料는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自動車文庫보다는 더 충실히 비치하였을 것이나 원래 완전한 참고봉사란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나 期待할 수 있는 것이어서 不滿足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 可能性

비판자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利點 때문에 自動車文庫는 계속 세계 구석구석으로 보급 확대되고 있다.

첫째 도서관 시설, 장서, 인력 등 모든 分野에서 도서관 운용에 필요한 경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대에 자동차문고는 그러한 時代的 制限條件을 극복하고 도서관봉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버스」만한 크기의 자동차 한 대, 운전사 겸 사서 한 사람, 장서 3천권 내지 5천권이면 우선 몇 십개 마을 주민들에게 봉사할 簡易圖書館 한개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진다. 실제로는 본부에서의 自動車文庫의 時間表 조정, 藏書 선택, 대출 기록 정리, 목록 작성 및 배포 등 지원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용이 分館을 하나 세워서 유지하는 경우의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을 것이다.

둘째 自動車文庫는 住民들의 生活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도서관 봉사활동의 弘報機能도 수행하게 되어 住民들에게 讀書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공공도서관을 통한 圖書接近의 方便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그 地域社會의 自體圖書館을 세울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게 할 수 있다. 自體圖書館의 꿈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문고의 中央圖書館格인 郡立 또는 市立圖書館을 방문하여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變化와 發展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바람직한 前提이다.

셋째 自動車文庫는 마을文庫의 機能을 效率적으로 補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3만5천여 自然部落에는 모두 마을文庫가 비치되어 있다. 이것은 創始者 嚴大變선생과 동지 몇분의 집념과 헌신적 봉사의 결실로서 매우 소중한 圖書館遺産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 農漁村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公共圖書館 기준으로 보면 그것들은 아직도 초보적이고 不完全한 것이다. 자동차문고를 통하여 그 地域의 公共圖書館과 周邊 마을文庫들이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사실상 하나의 巨大한 藏書化가 이루어지고 周期的으로 각 마을文庫의 장서가 교체되면 현재의 제한된 마을文庫의 資源은 엄청나게 擴大·改善될 것이다.

(다) 運營主體

어느 수준의 도서관에서 자동차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一律的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理想論은 자동차문고가 奉仕對象地域과 相當히 큰 圖書館資源에 다 같이 近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代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資源이 충실하다면 郡立 또는 市立圖書館이 가장 바람직한 運營主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郡立 또는 市立圖書館의 資源이 貧弱하다면 道立圖書館이 그 地域을 위한 자동차문고를 設立 運營하다가 적당한 時期에 운영권을 넘겨 주는 接近法이 現實的이라 본다. 셋째 이웃한 몇개의 郡立圖書館들이 協議하여 共同으로 자동차 문고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능률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제주도가 그런 경우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船舶文庫

우리나라는 半島國家로서 三面에 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고 그 곳에도 人口의 相當部分이 살아 가고 있다. 이 섬들 특히 群小島嶼들은 아마도 圖書館奉仕의 혜택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內陸地方에서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마을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동차문고의 구실을 이 지역에서는 定期連絡船이나 巡航船이 맡을 수 있을 것이다. 船舶文庫의 형태는 多樣하다. 「스웨덴」 「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國家들에서는 公共圖書館이 專用船舶을 사거나 빌려서 圖書館奉仕에 맞도록 內部를 改造한 문자 그대로 船舶圖書館을 만들어 사용하며, 그것은 섬의 主要 港口에 며칠씩 정박하여 각종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면서 한 해에 두 세차례 정해진 길을 돌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기연락선이 우편물을 취급하듯이 새 책 상자를 내려 놓고 반납된 책 상자를 받아 신는 일을 하고, 책의 청구나 기타 대출사무는 公共圖書館과 港口分館 職員 사이에서 미리 우편이나 電信打字機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연락선의 방 하나를 빌려 自動車文庫의 경우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책을 빌려 가게 하는 형태도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정에 가장 적합한 것은 「캐나다」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섬마을들에 設置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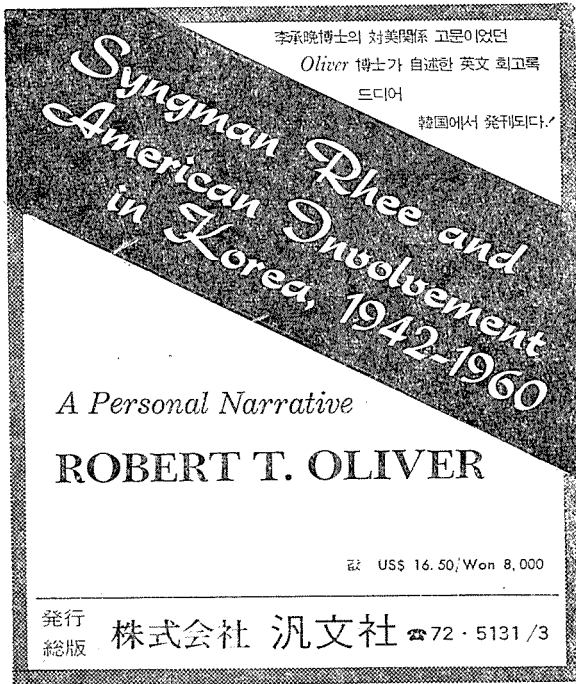
마을文庫와 그 運營委員들의 自發的 奉仕活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船舶文庫의 可能性이나 運營主體는 앞에서 論議한 自動車文庫의 그것들과 원칙상 다를 것이 없다.

6. 맺음말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國內外 圖書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돕는 公共裝置로서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은 그 資源이 빈약하여 현재 도저히 期待되는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공도서관 資源의 充實化는 用意周到한 계획을 세워서 成就하여야 할 國家的 課題이다. 그것은 不可避하게 相當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때까지의 時間的 空白을 最小限으로 줄이고 中斷 없는 奉仕를 제공하기 위하여 筆者는 自動車文庫와 船舶文庫의 可能性을 검토 活用하여 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1905年 世界 最初의 自動車文庫가 미국 「메릴랜드」州 「와싱턴」郡의 시골 길에 나타나고, 또 內部를 도서관 모양으로 改造하여 책을 싣고 司書를 태운 한 小型 軍艦이 船舶文庫라는 이름으로 1959年 「노르웨이」海岸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래 이 두 종류의 移動文庫는 세계 도처에 급속히 보급되었고 代替圖書館으로서 또는 圖書館奉仕의 補完手段으

로서 圖書館奉仕分野의 한몫을 擔當하여 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잠재력 개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 하였다. 앞에서 이모 저모로 살펴본바와 같이 自動車文庫와 船舶文庫는 오늘의 우리나라 公共圖書館 狀況에서 가장 現實的이며 迅速한 成果를 約束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圖書의 世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오고 있는 우리나라 山間 마을이나 섬마을 사람들에게 책을 보이고 빌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國家發展과 文化暢達은 國民과 책이 효율적으로 連結됨으로써 成就된다는 것이 도서관인들의 信念이다. 그러한 連結이 公共圖書館의 효율적 奉仕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當장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現實的 狀況에서 自動車文庫와 船舶文庫라는 잠정적 辦法을 考慮하게되는 것이다.



韓國圖書館發展計劃(草案)에 대한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本報 지난 9月號부터 韓國圖書館發展計劃(草案)을 掲載하고 있습니다.

이 草案은 本文 經위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 草案檢討를 위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當時 出版 分科委員會 玄 圭燮위원에게 草案作成을 委囑하여 이 案을 完成시킨 것입니다.

바람직한 發展計劃案을 確定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떤 具體案이 있어야 이를 中心으로 贊反 討論을 할 수 있다는 점에, 本 草案을 掲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 草案의 意味는 意見 聽取를 위한 條件形成의 한가지 수단이니 이러한 基本着想이 效果的으로 이룩되어 名實相符한 韓國圖書館發展計劃이 完成될 수 있도록 會員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討論과 提案을 글이나 口頭 등으로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